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³⁶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³⁷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³⁸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³⁹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⁴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⁴¹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⁴²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⁴³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24:36-43)

※ 이제 다음 주면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인 24장 44절로 53절을 끝으로, 지난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시작한 이 누가복음

속뜻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만 2년 2개월이 넘었는데요, 원래 대로라면, 즉 매 주일에만 했더라면 만 5, 6년도 더 걸렸을 겁니다. 처음엔 매일 예배 본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훨씬 짧아진 것이지요. 주님의 사 복음서 중 한 권을 그 속뜻으로, 비록 다른 분의 설교를 원본으로 해서이지만, 여러 해 살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성장, 곧 말씀의 속뜻에 관한 깊은 이해에 나름 도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창세기 번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속뜻 강해 설교 또한 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도 살짝 가져봅니다. 아울러 지금의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미약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으로 제 남은 노년을 이렇게 말씀의 속뜻을 강해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엠마오 본문 관련, 지난 두 주간 다른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후, 제자들은 실의에 빠져 있었습
니다. 그때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서둘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
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면
서 거기 있었던 사람 중 둘이 슬
퍼하며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주
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
하시다가 해 저물어 유할 곳에
들러 식사 중 그들에게 떡을 나
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죽은 믿음을 살리는 사랑의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들
의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신앙이
살아났다는 것은 사랑 없는 믿음이
사랑 있는 신앙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그 신앙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기 전까지는 이
들은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거든
요. 여기까지가 지난 두 주에 걸
쳐 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얕
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진리를 따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가 끊임없
이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
로 진리에 복종하려면 실패와 좌
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아
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문득 진리이신 주님이 함께하시
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엠
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
났어도 못 알아본 채 동행하다가
주님이 떡을 떼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 비로소 주님이심을 알아
본 것처럼 말이죠.

※ 이는 마치 아래 기술과도 같
은 상황이지 싶습니다. 스페텐보
리 저, ‘천국과 지옥’(김은경 역)
35번 글 일부 인용인데요,

...가장 바깥쪽 천국에, 천국이
천사의 내면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더 높은 천사들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더 높은 천국의 행복을 누
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더
높은 천사들 무리 가운데 들어
가 보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수
많은 무리가 거기 있었지만, 아무
리 찾아도 그들 눈에는 아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의 내면이 그곳에 있는 천사들의 단계만큼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씀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엠마오로 표상되는 진리를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주님이 바로 엠마오로 표상되는 진정한 진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후, 내면에 있는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진리를 붙잡고, 이방인처럼 교회 밖에서 서성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예루살렘, 즉 내면의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의 교회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본문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³⁶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내면의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평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꼭 평강을 기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¹¹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¹²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¹³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10:11-13)

주님은 왜 그렇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평강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아의 악과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않아도 되는 내적인 평화이며,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있을 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리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영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 저 역시도 최근 이것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복되는 무례함 앞에 속으로 당혹해 하면서 순간순간 몹시 언짢았으나 그때마다 얼른 주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보고자 힘썼더니 그 즉시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대답하셨겠구나 싶은 그런 말로 평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칫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었던 상황들을 철저히 봉쇄, 오히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며, 그에 따른 깊은 지혜 역시 얻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사람들은 그분을 영으로 생각할 뿐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³⁷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³⁸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으로서의 주님과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으로서의 주님은 인간의 합리성을 통해, 그러니까 이성적 이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겉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그에 비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겉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와 겉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직접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깊은 부분을 깨달았음에도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깨달음과 함께 행동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간의 겉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감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육신의 몸으로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뿐이시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때문입니다.

※ 개신교 표현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해’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표현들이 방금 말한 ‘육신을 입으신 주님’에 대한 개신교식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천국과 지옥’ 316번 글은,

주께서는 영뿐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다.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인성 전체를 영화롭게, 즉 신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의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신성 자체이셨고, 당신의 몸조차도 그 영혼, 즉 아버지의 영혼과 같이 되어 신성이 되셨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 316, 김은경 역) *The Lord rose again not as to his spirit alone but also as to his body, because when he was in the world he glorified his whole human, that is, made it Divine; for his soul which he had from the Father was of itself the very Divine, while his body became*

a likeness of the soul, that is, of the Father, thus also Divine. (HH.316)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몸을 아버지의 신성과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하여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인간들과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³⁹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⁴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뼈, 손과 발은 지극히 높은 천국으로부터 자연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을 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10044번 글 10번 항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주님이 당신의 인성의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덤에 당신의 인간에 속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분명하다. (이순철 역) *that the Lord glorified even the ultimate of his human is plain from his words above, and also from the fact that he left nothing of his human in the sepulchre.*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⁴¹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⁴²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⁴³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조차 진리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를테면 그런 태도가 주님을 영으로만 알 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생각하

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를 아시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선은 말씀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웠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건 지식적으로만 알뿐, 아직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나 잘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것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를테면 식탐이나 알콜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넷플릭스나 유튜브, 또는 게임이나 웹툰,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동안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신 주님께 문제가 되는 진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말입니다. 그것이 불에 구운 생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자 주님께서 그걸 맛있게 드셨습니다. 말씀에서 먹는 것은 진리와 선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건 사실은 주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진리와 선을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을 생명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리와 선을 각자의 사랑과 의지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과 악을 혐오하게 되고, 갖가지 중독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109번 글은,

주님이 오시기 전의 교회가 저녁이라면 주님이 오신 후의 교회는 아침과 같다. (이순철 역) *in the Word the state of the church before the Lord's coming is called evening, and the state after his coming is called morning.*

고 합니다. 또

세상에 오시기 전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회와 함께 계셨으나, 세상에 오신 후에는 직접 교회와 함께 계신다. (이순철 역) *Before the Lord came into the world he was present with men of the church, but only mediately, through angels who represented him; but since his coming he is present with men of the church immediately;*

고 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한 몸에서 나오는 진리는 이전의 진리와는 비할 수 없이 밝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부활하신 주님께 의해 새로운 교회

눅24:36-43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가 세워지는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새 교회를 통해 밝혀지는 진리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고 힘 있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의 비밀’ 9216번 글과 9828번 글은,

내적인 것은 마지막의 것 안에서 흐름이 멈추고 마지막의 것들과 결합하여 그곳에 머문다.

고 하고, 9836번 글은,

그러므로 내적인 것들은 질서의 마지막의 것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거룩하다.

고 합니다. 여기서 질서의 마지막의 것은 자연계와 그곳에 사는 인간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 신성하고 완전한 진리로 질서의 마지막까지 오신 것이며, 그곳에서 인간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들을 모두, 그리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³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⁴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삼하23:3-4)

아멘

2023-06-0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2025-01-26(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